

어린이집 / 유치원 선생님 면접 가이드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어린이집 / 유치원 면접질문 리스트!

▲ 개인영역

-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분 이내)
- 선생님의 지원동기는 무엇인가요?
- 본인 성격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업무와 연결해서 생각)
- 살아오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는 언제 인가요?
- 자신의 인생에서 크게 실패했던 경험을 말씀해 보세요.
- 취미(특기)는 무엇인가요?
-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소하는지?
- 나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 3가지가 있다면?
- (지원자) 선생님을 왜 뽑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출퇴근하는 소요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 교육철학 관련

※ 푸르니 / 한솔 / 삼성 등의 재단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철학 반드시 확인!

- 선생님의 교육관은 무엇인가요?
- 교사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프로그램이나 수업은 무엇인가요?
- 본인이 자신 없는 프로그램/ 수업 영역은 무엇인가요?
- 훈육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원 생활 관련

- 본인이 맡고 싶은 연령대가 있다면?
- 동료교사와의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경력의 경우, 경험을 질문)
- CCTV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아이들끼리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 대소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아이가 점심식사 때 밥을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아이가 낮잠시간에 잠을 자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아이에게 아동학대의 정황이 보인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건가요?
- 어떤 원장선생님과 함께 일하고 싶나요?
- 이전에 일했던 곳에서 들은 긍정적 피드백 1개 / 부정적 피드백 1개를 말해주세요.
- 유아교육기관의 유아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방/대처 방법도 함께 생각)
- 맡고 있는 아이의 학부모와 갈등이 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 기타

- (경력) 이직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 (경력) 합격해서 위 질문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알아 뉜야 하는 어린이집 / 유치원 면접대비 팁!

1. 지금 다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보세요

-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전 3회 정독은 필수
- 이력서에 기재된 학력 / 경력 / 자격증 / 업무능력은 반드시 세부적으로 파악
-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서 면접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예상질문 미리 체크
- 자신의 장점 / 위기를 해결했던 경험 등은 반드시 실제 사례를 위주로 파악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따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면접에서 이력서/자기소개서의 비중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면접관이 되는 원장선생님은 이력서/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면접자가 어떤 사람인지 이미지를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을 할지 생각합니다. 이력서/자기소개서가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고 풍부하게 담아냈다면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의 제한된 분량의 특성상 압축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이 점을 고려해서 내가 원하는 질문을 원장님이 할 수 있도록 나름의 '전략적 함정'을 팔 수도 있습니다. 질문을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만큼 수월하겠죠?

또 하나의 이력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이유! 기존 면접 질문리스트 위주로만 준비하느라 막상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면접관이 물어봤을 때, 이해를 못 하거나 해매는 모습을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이력서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면접을 앞둔 선생님이라면 가장 먼저 꼼꼼히 봐야하는 것은 바로 본인의 이력서/자기소개서 입니다.

▲ 질문 예시 : 자소서에서 쓰신 팀플레이 사례에서 본인 비중은 얼마나 돼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셨어요?

2. 면접 복장과 태도, 상황과 장소에 맞게

- 원피스 / 블라우스 + 블라우스or스커트 / 정장이 무난
- 노출이 심하거나 지나치게 화려한 무늬는 되도록 자제
- 네일 아트나 지나치게 긴 손톱은 피할 것

개성과 가치관이 중요한 시대이지만, 면접에서는 자리에 맞는 최대한 단정한 복장을 갖추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개성을 살린 복장으로 특별한 교육철학과 창의성을 어필할 수도 있지만, 면접관이 가질 수 있는 부정적인 첫인상을 뒤집기에는 면접시간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옷을 입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보다는 성실히 준비한 답변을 제대로 소화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지원자에게 이득입니다.

태도도 중요합니다. 면접은 내가 하는 말보다 ‘사소한 행동’이 당락을 결정짓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면접에서 모범답안은 어느정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원자의 답변은 다들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면접관이 ‘진실이나 혹은 거짓이나’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말보다 눈으로 보이는 ‘작은 행동’이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가벼운 미소를 띄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 ▲ 상대방의 말에 호응하고 경청하는 자세 ▲ 면접을 위해 들어오고 나가는 순간까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은 꼭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3. 사전조사는 필수

사전조사는 중요합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지원자가 "우리 원에 들어오기 위해 많은 것을 사전에 조사했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것 만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먼저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이나 직장 보육시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고 검색을 통해 시설규모나 교육철학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의 민간/가정 시설도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공시 <http://www.childinfo.go.kr>>와 온라인 검색을 통해 원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만 미리 파악해가도 면접을 준비하기에 수월하고, 합격 후에 판단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모로 사전조사는 필수입니다.

4. 1분 자기소개는 자기소개 하는 시간이 아니다

- 유아교육기관 교사라는 직업에 자신이 얼마나 적합한지를 강조
- 본인의 교사관/ 교육철학 등을 적절히 연결하는 것이 좋음
- 40초를 넘기는 분량이라면 굳이 1분을 맞추기 위해서 불필요한 말을 더할 필요는 없음

최근 자기소개를 시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따로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요청했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준비를 해보면 자기소개를 1분동안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꼭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할 점은 자기소개는 ‘개인적’인 자기소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자신의 취미나 개인사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린이집/유치원 교사라는 직업에 자신이 얼마나 잘 맞는지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 자신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고, ▲ 왜 교사가 되길 마음먹었는지, 그리고 ▲ 자신의 성격(능력) 중 어떤 부분이 교사가 되었을 때 도움이 될지**를 기반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 1분 자기소개를 듣고 있던 면접관이 이에 관해서 질문할 수 있으므로, 파생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파악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 질문 예시 : 자기소개에서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에게 친구 같은 교사가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 ‘친구 같은 교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친구’와 ‘교사’는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5. 좋은 답변은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면접에서 지원자가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긴장을 하거나 답변을 하다 길을 잃고, 질문과 맞지 않는 답변을 하는 경우' 입니다. 면접도 소통을 하는 자리입니다. 소통의 가장 기본은 '경청' 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면접관이 질문할 때는 내가 할말을 신경 쓰기보다 질문을 이해하는데 집중하세요.** 혹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1~2회 정도는 질문의 의미를

다시 물어봐도 좋습니다. 답변을 할 때는 항상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덧붙이는 말들이 주제에서 벗어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만 충분히 소화해도 안정적인 답변을 하실 수 있습니다.

6. 경험을 이야기할 때의 3단계

- 자신의 경험을 6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하게, 핵심내용을 담아 요약하기
- 해결을 위해 자신이 한 행동과 그렇게 실행한 이유를 이야기하기
- 경험을 통해 자신이 느낀 점과 향후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지 이야기하기

“다른 선생님과 갈등이 있었던 경우 어떻게 해결했는지 말씀해주세요.”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세요.” 와 같은 경험에 대한 질문은 어떤 면접에서나 단골로 나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좋은 답변을 하기 위한 포인트는 3가지로 **▲ 사건요약 ▲ 본인의 행동 (이유) ▲ 느낀 점**입니다.

우선 사건요약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듣고 이해할 수 있게 사실 위주로 요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소연이나 불평으로 들리지 않도록, 감정적인 표현을 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이후 과정이 더 중요한데요. 발생한 위기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이 한 행동을 근거와 함께 말씀해주세요. 집단에서 공동으로 개선 활동을 했다면, 이 때 **본인이 한 행동을 명확히 구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근거를 이야기 해주시면 더욱 이야기에 신뢰도가 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경험을 통해 느낀 점, 그리고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일했을 때 경험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한 후 마무리하면 적절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와 같은 케이스 질문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답변하시면 됩니다.

7. 많이 떠는 나, 괜찮을까요?

떨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난 절대 떨어서는 안 돼!’ 라는 부담감이 더 긴장을 하게 만드니 너무 떠는 것에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심하게 긴장해서 본인의 말이 전달이 안될 정도가 아니라면, 떠는 것만으로 당락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면접은 나름대로 처음 본 사람 간의 소통의 자리입니다. 떨림 없이 청산유수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한 재능이지만,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너무 정석적인 답변이 기계처럼 나온다면 "외워온 거 아냐?" 라는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에 조건부로 붙였듯이 본인의 생각은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장해서 면접관의 반응을 보고 갑작스럽게 의견을 뒤집거나, 중언부언 붙이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데 집중하세요.

8. 면접은 서로 보는 것이다

면접자리는 특성상 이미 갑/을이 정해져 있는 롤플레이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면접관이 내가 마음에 들어 합격을 시키더라도, 원이 본인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지원자가 취업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에게 (반드시 예의를 지키며) 궁금한 것들은 물어봐야 하고 주눅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 듯 ‘여기에 무조건 합격해야 해! 여기 떨어지면 끝이야!’ 같은 생각은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 어린이집/유치원을 선택한다는 마음으로 편하게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신감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9. 공포의 질문, 왜 이직하세요?

이직을 생각하시는 경력직 선생님이라면 사실 “왜 이직하세요?” 라는 질문은 99%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항상 어렵습니다. 이유가 이사와 같은 불가피한 사항이거나 원의 사정이라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장님 / 동료교사 혹은 학부모와의 갈등이 이유라면 답변하기 곤란 해지는데요. 우선 퇴사를 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타인을 비난하거나 깎아내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문제가 상당 부분 타인에게 있었다고 해도,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상대방의 입장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되어서 나오는 질문이 “그럼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관 (원장님) 에게 ‘아니다’라는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그 이유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면접을 앞둔 선생님에게 하고 싶은 말



키드키즈 면접꿀팁 1

**원장선생님이 아니라
친구엄마라고 생각하자!**

* 초록색은 불안감을 낮추는 데 좋다고 합니다 :)



키드키즈 면접꿀팁 2

**면접 장소는 미리미리
여유롭게 가자!**

* 초록색은 불안감을 낮추는 데 좋다고 합니다 :)



키드키즈 면접꿀팁 3

**떨어지면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나에게 안맞는 곳일 뿐**

* 초록색은 불안감을 낮추는 데 좋다고 합니다 :)

선생님 원하는 곳에 꼭 합격하길
키드키즈가 진심으로 기원합니다!